

“연구실 넘어 세상으로.. 창업·사회혁신 이끄는 과학기술 인재들”

## GIST,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 AI 문명 전환기 이끌 졸업생 308명 배출

- 20일(금) 오후 2시 박사 70명 포함 총 308명 학위 수여 누적 9,166명 과학기술 인재 배출.. AI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현실문제 해결사회수요 대응형 연구 성과 두각
-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GIST 김우승 이사장 (주)뉴로핏 김동현 CTO 축사.. 박인규 본부장 “대한민국과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자부심으로 혁신의 최일선에서 마음껏 도전할 것”



▲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과 학부모가 GIST 공식 캐릭터 지니어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20일(금) 오후 2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사 70명을 비롯해 석사 130명, 학사 108명 등 총 308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GIST는 1993년 설립 이래 박사 2,165명, 석사 5,401명, 학사 1,600명 등 총 9,166명의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GIST 김우승 이사장, (주)뉴로핏 김동현 공동대표이사(CEO) 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단상에 올라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박인규 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 인재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며, “여러분의 한 걸음이 대한민국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혁신의 최일선에서 마음껏 도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처음 교정에 들어서며 품었던 꿈을 잊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것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GIST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우승 이사장은 “AI가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인간만의 강점인 공감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연해 보이는 것에 ‘왜?’라고 묻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상력으로 생각의 깊이를 키우라”고 당부했다. 또한 “좋은 인생이란 스펙이 아니라 스스로 써 내려가는 ‘이야기’에 달려 있다”며, “꿈을 구체화하고 주어진 시간을 절박하게 활용해 각자의 의미 있는 삶의 서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석·박사 출신 창업가 김동현 대표는 AI 기반 뇌영상 분석 및 치료 계획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주)뉴로핏을 2016년 공동 창업해,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며 국내 대표 AI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이날 그는 자신의 창업 도전을 돌아보며 “도전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라는 깨달음을 전했다. 이어 “GIST에서 맺은 동료·선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박사 70명은 재학 기간 동안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에 총 341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1인당 평균 4.5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GIST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AI대학원(現 AI융합학과)에 이어 지난해 AI정책전략대학원을 개원하며 미래 AI 거버넌스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GIST의 AI 분야 인재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박영재 박사(AI융합학과)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AI 알고리즘 연구로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학술대회와 국제학술지에 총 9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기후 변화 대응 등 현실 문제에 AI를 적용한 연구 성과로 국제학회 우수 논문 및 구두 발표 논문에 선정됐다. 또한 AI 기반 위험 감지·이상 상황 탐지 기술 관련 특허 4건을 출원·등록하며 연구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러한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졸업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교수로 임용돼 향후 AI 응용 연구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GIST의 인간 중심 교육 철학을 반영한 수상도 이어졌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김준호 졸업생은 재학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월드프렌즈코리아 IT 봉사단 라오스 파견팀 팀장으로 참여해 현지 학생 대상 IT 교육과 수혜 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도했으며, 해당 활동으로 우수활동 부문 2위상을 수상하고 현지 방송에도 소개됐다. 또한 GIST 사회공헌단 '피움' 총괄멘토와 국립광주과학관 교육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며 지역 과학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과학기술은 성과를 넘어 가치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고 믿는다"며,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그 가치를 나누는 연구자로 나아가자"고 소감을 전했다.



▲ GIST가 20일(금) 오후 2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GIST 학생들의 창업과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철학 역시 미래 인재 발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이재희 졸업생은 상담센터 도래상담자, 사회공헌단 '피움' 멘토, 외국인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나눔과 소통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경진대회와 메이커톤 등에서 수상하며, 기부 플랫폼 '천사 발굴단' 창업 멤버로 참여해 추천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고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학업·연구·창업 성과를 인정받아 미래인재상을 수상했다. 이 졸업생은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장상은 지난해 2월 학위수여식에서 처음 시상된 이후,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세 번째로 시상됐으며, AI융합학과 주호택 박사에게 수여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GIST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주 박사는 GIST 창업진흥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책임자로 참여하며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영상 변환 서비스 기획과 e스포츠 증계용 자동 촬영 AI 시스템 개발 등 딥테크 기반 기술 구현 성과를 냈다. 또한 2023년 이후 정부 및 주요 기관 창업 지원사업 8건에 선정돼 약 3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며 기술 사업화 가능성도 입증했다. 그는 “창업은 도전과 학습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며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며 기술 기반 혁신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한 문명 전환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오늘날의 경쟁은 기술과 인재, 그리고 혁신의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선택과 역할이 개인의 진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총장은 “AI 시대에도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어야 한다”며,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만큼, 과학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뉴로핏 김동현 대표가 GIST 20205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편 GIST는 임기철 총장이 강조해 온 'AI 문명 전환기 대학의 역할'에 맞춰 교육·연구·창업을 아우르는 혁신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학사조직 개편을 통해 학문 간 융합과 공동연구 기반을 강화했으며, 기초과학부터 첨단기술까지 연구 역량을 집적하는 캠퍼스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융합학과와 AI정책전략대학원에 이어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개교를 준비하는 등 전주기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스트기술지주(지스트홀딩스) 설립과 기술경영대학원 개원을 통해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